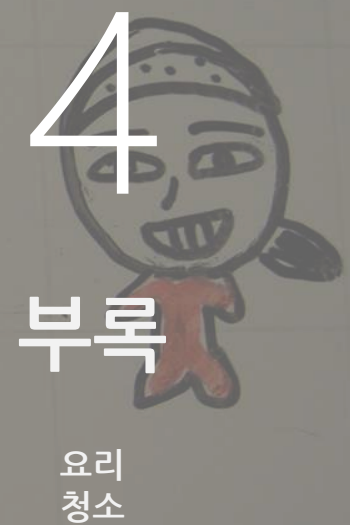


SEPTEMBER



19기 베트남팀
강예진 김나은 원민석 조은슬 최인혁

CONTENTS



Introduce

VIETMEN
YSD
Buddy



설득시켜봐

슈커케인

쥬크박스

나눔요정

은솔아
생일축하한다!!

도비

머머리

회의하자

뽕뽕이

탈모샴푸

내기왕

영화감상

벌레가 제일 싫어

환기시켜자

메인세프

발성애자

요리왕

루카~

우와 비온다!!

PM

반다나 고르기

인편

이슬요정

깔끔쟁이

어떻게 생각해

아이들을 좋아함

슈커케인

식욕복구중

발냄새1

청소하자

고마워

짱돌♥

바이올렛

다만너

고추장찌개

세스코

원닥터

DISTRICT 1

가위바위보 천재

카레 좋아함

메인세프

베트남어 통역사

광명동굴

조깅

하늘

야깅

발냄새2

오이 빼주세요

물건이 하나씩
사라짐

RaonAt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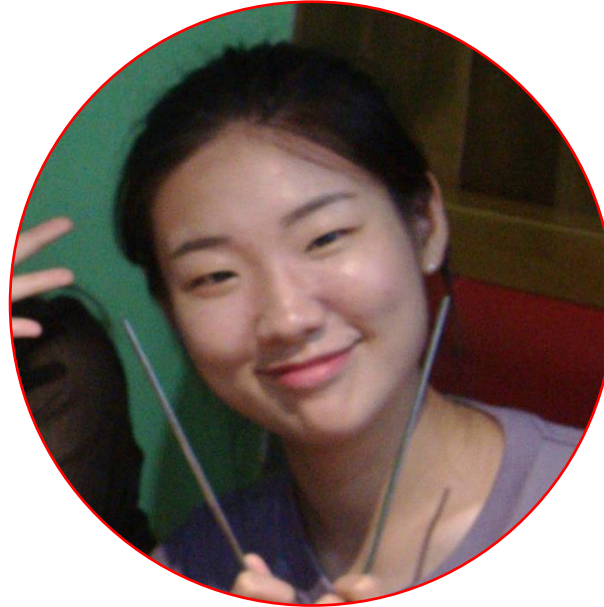
PM

탈모샴푸

회의하자

루카~

이슬요정



식욕복구중

발냄새1

강예진(22)-Tran-
태도는 겸손하게 행동은 당당하게

DISTRICT 1

조깅

마산사람

도비

환기시키자

옥상

우와 비온다!!



메인세프

짱돌 ♡

가위바위보 천재

김나은(22)-Ngan-
“도비가 되고싶어”

약 먹자

하늘

오이 빼주세요

설득시켜봐

내기왕

내아들 내딸

머머리

Mot(1)민석

깔끔쟁이



뽕뽕이

요리왕

원민석(20)-Khoi-
“내 아들 내딸이야”

아이들을 좋아함

원닥터

살인윙크

세스코

고마워

나눔요정

군대 인편

영화감상



청소하자

슈거케인

고추장찌개

조은솔(23) -Thu-
“나눔 하자”

카레 좋아함

베트남어 통역사

미안해

물건이 하나씩 사라짐

쥬크박스

벌레가 제일 싫어

은솔아
생일축하한다!!

어떻게 생각해



다만너

바이올렛

최인혁(23)-Tuan-
“나이쓰~”

광명동굴

야깁

발냄새2

YSD와 Buddy를 소개합니다!

YSD



비엣 Viet (23)
락온아띠 메인코디



키엣 Kiet (24)
두 봉사기관의 책임자



제니 Jannie (21)
YSD 인턴

베트남팀엔 모든 **봉사**와 **프로젝트**를 함께 하는 7명의 현지인 친구 Buddy가 있다!

Buddy



루카 Luca (20)



미아 Mia (20)



산 San (20)



바다 Ngoc (21)



폼 Phuc (21)



가을 Trang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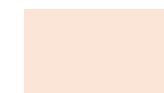
안 Anh (21)

Schedu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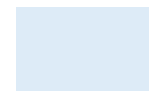
Training
Ky Quang / Thao Dan
End Poverty
+ 휴식시간

실 틈 없던 베트남팀의 9월 일정표_8.28~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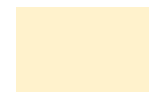
VIETMEN Team Schdule Sheet 2019.8.28~9.30						
일	월	화	수	목	금	토
			8.28 베트남 도착	29 OT & 규칙정하기	30 Photography & Vietnamese class Welcome party	31 Project Management & Communicating with children
9.1 Ky Quang Reflection	2 Ky Quang 독립기념일	3	4 Ky Quang	5 Thao Dan	6 Ky Quang	7 Thao Dan
8 PMP & 시내투어 Reflection	9 Ky Quang	10 Thao Dan	11 Ky Quang	12 Thao Dan	13 Ky Quang	14 Thao Dan
15 Reflection	16 Ky Quang	17 Thao Dan	18 Ky Quang	19 Thao Dan	20 Ky Quang	21 Thao Dan
22 한인타운 Reflection	23 Ky Quang	24 Thao Dan	25 Ky Quang	26 Thao Dan	27 Ky Quang	28 Thao Dan
29 Reflection	30 Ky Quang					



트레이닝



**Ky Quang
사찰 내
보육센터**



**Thao Dan
학교 밖
청소년 센터**

트레이닝

베트남에 도착 후, 앞으로의 베트남 생활을 위해 사흘간 여러 트레이닝을 받았다

8.29



Orientation & 규칙 정하기

YSD의 Supervisor Wendy와 함께 숙소 이용규칙을 정하며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8.30



Vietnamese & Photography

- 스마트폰이 없는 생활 속 카메라 촬영을 위해 간단한 포토그래피 수업을 받았다
- 버디를 처음 만나 자유로운 분위기 속 베트남어 수업이 진행되었다

8.31

Communicating with children & Project Management

- 첫 3개월을 두 아동관련 센터에서 봉사해야 하기에 아이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웠다
- End Poverty와 KB 프로젝트를 위해 문제발견 단계부터 클로징 단계까지 전반적인 프로젝트 관리방법에 대해 트레이닝 받았다





Ky Quang

보육, 교육으로 아이들과 함께한 9월의 Ky Quang

Ky Quang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공존하는 사찰 내 보육원



베트남팀 9~11월의 주 일정은 두가지로 나뉜다

- 월, 수, 금 Ky Quang
- 화, 목, 토 Thao Dan

그 중 Ky Quang은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공존하는 사찰 내 보육원이다



장애아동:

18세가 되면 독립생활 여부를 선택

비장애아동:

유치원, 학교처럼 교육받으며 생활

일부,

남자아동은 스님, 여자아동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 교육받음



교육 팀 & 보육 팀으로 나뉘어 봉사 진행



1

비장애아동 교육

- 매주 월요일 실라버스 기획
- 수, 금요일 수업 진행
- 오전 : 고학년 아동들과 수업.
- 오후 : 저학년 아동들과 수업.



2

장애아동 보육

- 매주 월, 수, 금 보육.
- 지체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케어.
- 설거지, 청소로 주변 환경 정리.

1 - 비장애아동 교육

수업 진행 :

아동의 흥미
유발을 위해
시각적인 자료로
수업 진행



Syllabus 실라버스 :

수업 계획 및
교육방법 구상



수업 참여 :

아이들과 소통하며
참여를 이끌어냄

2 - 장애아동 보육



아동 케어 :

아이들과 함께 놀며
유대감 형성



청소 및 식사 도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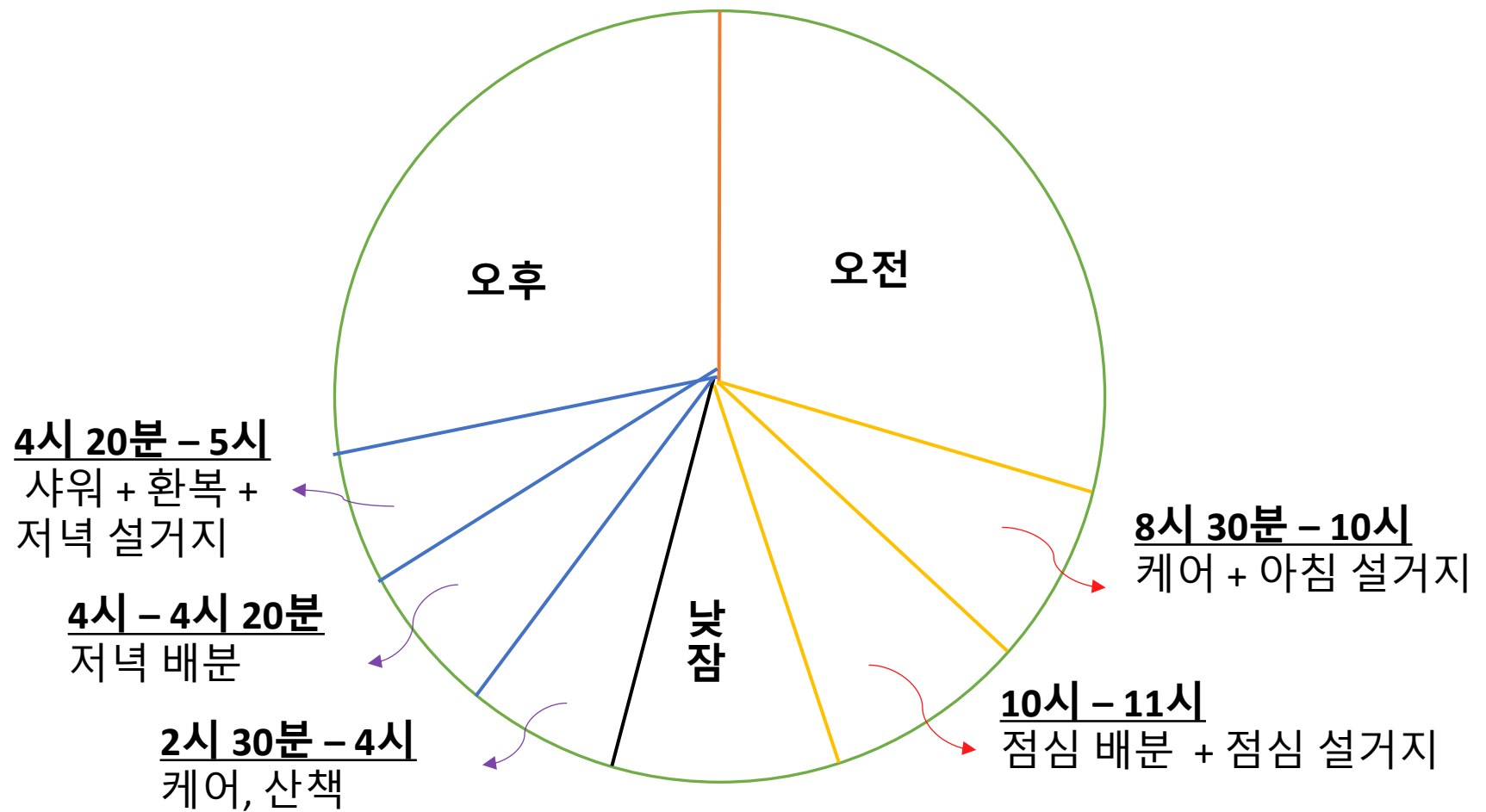
아이들의 점심, 저녁
식사를 먹이고 설거지를
도움



산책 보조 :

교실 밖으로 나가
활동량이 없는 아이들의
산책을 도움

2 - 장애아동 보육



Ky Quang & 라온아띠



은솔's feedback

Ky Quang Pagoda에서 하는 장애아동 보육과 비장애아동 교육, 이 두가지 봉사 중 개인적으로 나는 장애아동에 더욱 애착을 느낀다. 장애아동들과 많이 편해져서일 수도 있고, 몸으로 놀아주고 돌보아주는 것이 더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일 수도 있다.

아이들이 나를 알아보고 미소 지을 때, 나를 편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는 게 느껴질 때 나는 오히려 내가 아이들에게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장애아동은 일정한 공간에서 매 끼니 고기와 채소, 밥을 죽처럼 섞은 식단을 먹고, 성별이나 2차 성장과 관계없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옷이 갈아 입혀지며, 비위생적인 환경 속에 살아간다.

관리해주시는 선생님과 봉사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이 많은 고아장애아동을 돌본다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을까? 한정적인 인력과 자원으로 서른 명 남짓한 아이들을 더 나은 환경 속에서 돌볼 방법은 없을까? 잘 돌볼 자신이 없다면 아예 데려오지 않는 것이 옳지 않을까? '잘 돌보다'의 기준을 내 멋대로 판단한 것은 아닐까? Ky Qunag Pagoda는 나에게 많은 의문을 갖게 한다.



인혁's feedback

우리의 첫 정규봉사장소여서 무슨일을 하게 될까하면서 임했던 것 같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키왕에서 봉사하는 9월의 하루하루가 나에게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나에게 대해 좀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다. 첫 봉사를 시작하던 날, 본 수많은 아동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장애아동실, 가장 많이 친해지고 소통하였던 승려아이들과 함께한 시간 모두 쉽게 잊혀지지 않을거 같다. 난 내가 아이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여기서 봉사하면 할수록 아이들이 좋아졌고 아이들이 먼저 날 찾아주었을 때 내가 아이들과 생각보다 잘 어울릴수 있었구나라고 생각했었다. 그리고 다른 문화권, 언어가 안 통하는 사람들과는 이렇게 단기간에 친해질 수 있을거라고곤 생각을 못했다.

서로 언어가 통하질 않아도 공통된 관심사나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으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이 아이들에게 교육을 진행했을 때 쉽게 편하게 가르칠 수 있었던 것 같고 프로그램 기획서를 작성할 때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임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아쉬운 건 키왕을 갈 때는 항상 5시 30분에 일어나서 준비했다. 일주일에 3번 그리고 다른 부가적인 일까지 겹쳐 생활하다보니 어쩔 땐 체력적으로 많이 지쳐있을 때도 있었고 너무 기계적으로 산 거 같은 느낌을 받다보니 업무로 느껴질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느낌, 저런 느낌을 다양한 환경속에서 받다보니 그 속에서 적응하고 성장하고 있는 느낌을 받은 거 같아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되는 9월이었다.



예진's feedback

천천히 적응해 나간 키워. 인생 처음으로 아동 관련 봉사를 해보았다. 사실 나에게 아동은 친숙하지 않은 존재로 느껴졌었다. 멀게만 느껴졌던 아동이라는 존재가 키워를 통해 나에게 익숙하고 친숙한 존재로 변화했다.

먼저, 장애아동교실에서는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아이들을 돌보는 활동을 했다. 몸을 움직일 수 없고, 말을 할 수 없는 아이들과 놀고, 밥을 먹이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처음에는 마냥 힘들기만 했던 활동이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마음속 가장 큰 울림을 준 활동이 아니었나 싶다.

그리고 비장애아동에게는 영어를 사용해서 영어를 교육하는 활동을 했다. 영어를 가르친다는 부담감에 적지 않은 압박과 부담감을 느꼈다. 하지만 버디 친구들이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도와주었고, 아이들과 정을 나누는 것에 재미를 붙이자 영어 수업은 아티활동 최고의 동기부여 중 하나가 되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 들어오는 일정에 몸이 많이 힘든건 사실이지만 팀원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웃으며 이겨 낼 수 있는 것 같다.(진심이다)



나은's feedback

처음에는 너무 관광지스러운 키왕의 모습이 다소 충격적이었다. 이곳은 매일 북적이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그들은 동물원에 놀러온 것 마냥 카메라를 들이밀었다. 심지어 무방비한 상태인 아이들의 모습이 인스타 라이브에 노출되었다.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위생, 시설, 환경 개선, 교육은 뒤로하고 그들의 배고픔을 매일 간식으로만 채워갔다. 홍보와 관광에 더 신경을 쓰는 모습이 너무나 불편하다.

모든 것이 처음이었다. 장애 아동들과 어울려 놀고, 밥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샤워를 시키고 이 모든 것을 해냈다는 것이 스스로 대견하고 신기할 뿐이다. 아이들을 마냥 귀여워하고 좋아할 줄 알았지만 아이들과 함께 노는 것에 대해 힘들어하는 나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다. 함께 논다는 것보다 놀아준다는 생각이 크기 때문일까? 그리고 계속 같이 노는 아이들이랑만 놀다보니 나머지 아이들을 신경쓰지 못했다. 그 아이들도 따뜻한 손길을 원했을텐데 미안한 감정이 든다. 앞으로는 더 많은 아이들에게 밝은 에너지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민석's feedback

키왕의 사찰 보육원은 참 크다. 우리가 봉사한 장애아동들 교실은 청소를 계속해도 열악한 환경을 가진 것 같았다. 신체가 불편한 아동들은 대부분 제자리에 고정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고 거의 언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봉사를 시작했을 때 현지 코디 덕분에 기본적인 상황은 들을 수 있었지만, 봉사를 하며 생기는 상황에 따른 소통을 할 수 없었다. 해외봉사를 하는데 매뉴얼 정도로 쉽게 알려주면 좋을 것 같다.

아이들이 먹은 접시, 수저를 설거지하면서 나온 음식물을 모두 하수구에 버린다는 것이다. 설거지하는 장소는 항상 모기로 가득했고 장애아동들이 사용하는 화장실도 같이 있었다. 우리가 설거지하는 와중에도 아이들은 용무를 보며 그 잔해물들이 하수구에 같이 내려가는데 이런 문제에 대하여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 장애아동들을 위한 화장실을 마련하면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쾌적한 환경이라고 생각하는데 키왕은 장애아동들을 위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아이들 교육은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친구들이라서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었고 유대관계를 쌓을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었고 이 친구들은 잘 뛰어노는데 장애아이들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참 안타깝고 자유를 주고 싶다,,,!





THAO DAN



다양한 아이들, 사람들과 함께한 9월의 THAO DAN

Thao Dan

학교 밖 청소년 센터

-화, 목, 토 정기봉사를 가는 THAO DAN은
초, 중생 아이들이 등교 전 후 모이는 장소로,

영어, 수학, 국어, 오락 등 다양한 교육과 활동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한국인 뿐만 아니라 베트남, 네덜란드, 독일
등 다양한 국적의 많은 사람들이
Thao Dan에 방문하여 봉사를 진행한다

Thao Dan

학교 밖 청소년 센터

화	목	토
A팀: 민석, 예진, 은솔 B팀: 인혁, 나은	C팀: 예진, 나은, 민석 D팀: 은솔, 인혁	5명 모두

화요일 / 목요일

- 오전: A팀/C팀 실라버스 만들기
B팀/D팀 수업진행
- 오후: B팀/D팀 실라버스 만들기
A팀/C팀 수업진행

토요일

다섯 멤버 다같이 진행하는 meaningful game 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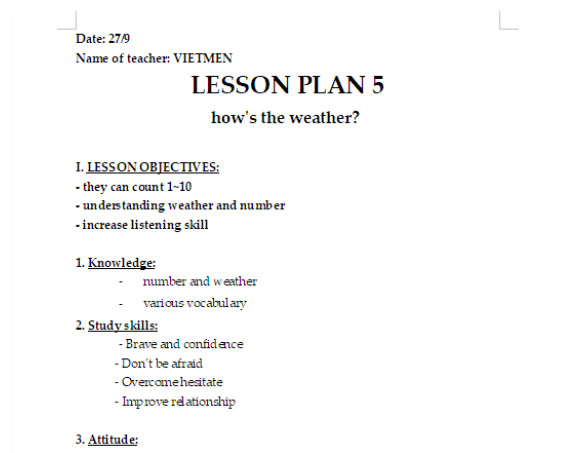


팀을 정할 때 우리는, 멤버 한 명 한 명이
남은 네 멤버 모두와 함께 일해보기를 원했다.
그렇게 정해진 A,B,C,D 팀!

THAO DAN에서 수업을 진행하기까지



1. Syllabus 만들기



3. 피드백 수령 후 준비물과 스크립트 준비

2. Thao Dan 선생님과 YSD Kiet에게 피드백 요청



4. 실라버스를 토대로 수업진행

Thao Dan

학교 밖 청소년 센터

처음 실라버스를 만들던 날, 버디들은 우리에게
“아이들에게 어떤 걸 가르치고 싶냐” 고 질문하였다

우리는 지구온난화, 분리수거, 경제 및 환경과 같이 한가지
주제로 구체적인 수업을 하고싶다 답하였지만,

Date: 01/10

Name of teacher: VIETMEN

LESSON PLAN 7

Body & Hospital

I. LESSON OBJECTIVES:

- know our body in English
- know diseases in English
- know situations in hospital in English

1. Knowledge:

- how to say Body in English
- how to say diseases in English
- know hospital words in English

2. Study skills:

- Overcome hesitation
- Improve relationship
- study english word

3. Attitude:

- The sense of accomplishment from activity
- The sense of satisfaction that the class was interesting

II. SUPPLIES FOR TEACHING

- color paper
- board
- pe

III. ORGANIZATION OF TEACHING ACTIVITIES

1. Class stability: Games, Icebreaking

2. Teaching process

			proceed game(15m)	Follow the rule(5m) -Active participation		transmission have to stand up on one newspaper
6	1050-1120	balloon game	-Explain the rule(5m) -proceed game(25m)	-Play game(25m) -Follow the rule(5m) -Active participation	-increase friendship -have fun	(Rule) - two person carry the one balloon, using their back. -when they arrive the spot, burst the balloon - turn ten laps and holding their hand come back
7	1120-1150	announce the winner team	announce			
8	1150-1200	lunch				
9	1200-1230	elephant nose game	-Explain the rule(5m) -proceed game(25m)	-Play game(25m) -Follow the rule(5m) -Active participation	-increase friendship -have fun	(Rule) -make 3 teams -3 people turn around 10, and point spot
10	1230-1300	moving beans	-Explain the rule(5m) -proceed game(25m)	-Play game(25m) -Follow the rule(5m) -Active participation	-improve character skill -increase friendship	(Rule) -make 3 teams -3 people carry beans from one dish to the other dish
12	1300-1340	Break time				
13	1340-1400	K-POP dance	-show students k-pop dancing(bba bba bba)	-Follow teachers -Active participation	-increase dancing skill -improve pop's knowledge	

Date: 1/7/9

Name of teacher: VIETMEN

LESSON PLAN 1

Introduce(know each other)

I. LESSON OBJECTIVES:

- Increase friendship
- understanding each other
- love your friends

1. Knowledge:

- Know each other's information
- Know themselves

2. Study skills:

- Brave and confidence
- Don't be afraid
- Overcome hesitate
- Improve relationship

3. Attitude:

- The sense of accomplishment that he made his own presentation
- The sense of satisfaction that the class was interesting
- Understanding the difference

II. SUPPLIES FOR TEACHING

- Color pens & Pens
- A4 papers
- Boards
- Laptop
- Music
- Speaker
- Name tag
- post it

Serial	Timeline	Content	Teaching activities activities of teacher activities of students	Table writing content	Meaning of activity	Notes
1	9:00-9:20	1, 2, 3 game	-Explain the rule(5m) -proceed game together(25m)	-Play game (15m) -Follow the rule(5m) -Active participation	-Activation -team bonding	(Rule) 1. make 2 teams 2. If teacher says one word, students doing action related word
2	9:20-9:50	body speech	-Explain the rule(5m) -proceed game together(25m)	-Play game (15m) -Follow the rule(5m) -Active participation	-Activation -learning english word	(Rule) -one chooses one topic, one using body talk to the other member - the other members guess about answer
3	9:50-10:10	sensitive game	-Explain the rule(5m) -proceed game(25m)	-Play game(15m) -Follow the rule(5m) -Active participation	-activation -improve creativity	(Rule) -hide one object in the box - touch the object, one by one - tell the answer the body
4	10:10-10:30	Break time	-Explain the rule(5m) -proceed game(25m)	-Play game(15m) -Follow the rule(5m) -Active participation	-improve teamwork	(Rule) -all of team members have to stand up on one newspaper
5	10:30-10:50	newspaper game	-Explain the rule(5m)	-Play game(25m)	-improve teamwork	(Rule) -all of

베트남어를 할 줄 모르는 우리는 영어 스크립트를 준비하고 버디들이 베트남어로 통역하여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그렇게 될 경우 구체적인 주제를 가르치기 힘들다는 대답을 받았다

결국 모든 수업의 과목은 영어로 결정되었다

자기소개, 인사, 신체, 질병, 병원, 색깔, 날씨 등 여러 주제로 영어를 가르쳤다

각 챕터마다 review게임을 활용해 배운 지식을 복습하며 아이들의 흥미유발을 도왔다

Thao Dan에서 베트남팀이 한 고민과 노력



활동을 시작하기 전, “언어가 다른 베트남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지만,
모든 수업은 최소 한 명의 Buddy와 함께 하기에 베트남어 통역을 도와줌으로서 진행을 할 수 있었다
그와 동시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우리가 준비한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었다.
아이들과 계속 소통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나아갔다.

은솔's feedback

Ky Quang에 비해 아동의 인권이 잘 지켜지고 있는 센터였다. 본래 내가 생각했던 교육은 환경, 경제, 한국문화와 같이 날마다 다른 과목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었는데, 아이들에게는 기본적인 영어교육이 더 필요하여 모든 수업을 영어과목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들었을 때 조금 아쉬웠다.

예상과 달리 학생수가 너무 적어(1~2명) 당일 날 수업이 취소되는 날이 많았다. 수업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End Poverty나 Syllabus와 같이 항상 해야 하는 과제가 많았기에 수업이 취소된 날엔 다른 과제에 몰두하였다.

그 모습이 기관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소극적으로 비춰졌다고 피드백을 받았다. 1~2명의 학생과 놀지 않고 우리끼리 노트북으로 회의를 하는 모습이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제안으로 10월부터 Thao Dan 주 임무가 바뀌었다. 달라진 일정이 기대된다.



인혁's feedback

두 번째 정규봉사장소인 만큼 많은 기대감이 있었다. 키왕과 다르게 타우단은 체계적인 느낌을 받았었다. 여기서 확실히 느낀 것은 아이들은 다 똑같다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아이들과도 쉽게 친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아쉬웠던 순간이 많았던 것 같다. 항상 적은 아이들, 수업준비를 했지만 계획이 틀어져 진행을 못했을 때 등 우리가 준비했던 것을 준비한 만큼 다 보여주지 못한 것 같다. 대신 다른 선생님들이 수업하시는 것을 지켜보고 어떤식으로 해야 아이들의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 그리고 많은 아이디어들을 얻을 수 있었다. 9월 한 달 동안은 가르치는 것보단 그냥 지켜보는 시간이 더 많았었지만 앞으로는 지금까지 배운 것을 활용하여 성장하는 10월이 되기를 기대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예진's feedback

나는 타우단에서 만난 '웡'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한다.

웡은 어린 시절 타우단에서 돌봄을 받고 자란 요리사이다. 그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지만 전세계를 돌아다닐 기회를 찾기 위해 스스로 노력했고, 실제로 유럽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일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은 영어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일년 뒤에 미국을 가서 일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했다. 웡은 36살이지만, 그에게는 나이가 어떠한 장벽도 되지 못했다. 그는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었다. 웡에게 미안하고도 존경스러운 감정이 들었다. 나에게는 태어날 때 부터 주어진 좋은 조건들이 많았고, 그것들을 적절히 활용하며 자라왔다. 하지만 웡은 내가 당연하게 누렸던 것들을 얻기 위해 한 평생을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해왔다. 웡과의 대화에서 나는 국내 훈련에서 배웠던 진정한 의미의 평등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이 다시 들었다.



나은's feedback

아이들과 몸으로 놀아주는 것이 벅했는데 한글 수업을 하던 날, 큰 기쁨을 느꼈다. 아이들과 나, 서로가 원하는 수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더 자신감 있고 열정적으로 임할 수 있었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수업을 더 하고싶다!

사실 타우단의 활동은 지루하다. 바뀌는 스케줄을 미리 공지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 화가 나기도 했다. 전날까지 실라버스를 만들고 준비한 노력과 수고가 무용지물이 된 것만 같았다. 또한, 2~3명 뿐인데 봉사자가 10명이 넘을 때 무기력함을 느낀다. 이렇게 많은 봉사자가 필요할까? 더 의미있게 시간을 보내고 싶다.

나는 사람을 대할 때 먼저 다가가지도 않으면서 경계하고, 벽을 세울 때가 있다. 하지만 아이들은 아무런 편견 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반겨준다. 나는 잘 해 준 것 없는데 항상 웃는 얼굴로 내 손을 잡고 따라와준다. 참 감사하다. 아이들에게 더 다가가고 웃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민석's feedback

아이들이 참 밝았다. 정말 쾌활하고 에너지가 정말 많은 친구들로 이루어져 있는 기관 같아서 기대됐다. 하지만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듣고 걱정이 되었는데 에너지 넘치는 아이들을 수업에 집중시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팀이 오전, 오후수업을 짜도 아이들이 2~3명밖에 없어서 수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이 아쉽다. 끊임없이 신라버스를 짜도 수업을 하지 못한다. 수업을 한다 해도 오전, 오후 중 한 번만 할 수 있어서 매주 신라버스를 계획해도 다 티칭을 할 수 없음이 안타깝다.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해놓고 가는데 할 수 없는 것이 지속해서 수업이 취소되면서 기관에 가는 의미가 없어진다. 토요일 같은 경우, 아이들이 많은 날인데 그날도 기관 측에서도 수업이 예정돼있고 우리 쪽에서도 수업이 예정돼있으면 기관 측 수업을 하여 우리는 수업을 듣지 않는 아이들을 맡는다. 수업 여부도 불확실하고 변동도 심해서 아이들이 많은 유일한 날을 위해 준비한 우리도 아쉬움이 가득하다. 정확한 수업 여부를 알려주고 수업을 계획하면 훨씬 수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 여전히 아이들은 좋다 ㅎㅎ



우리는 9월 현지 적응과 동시에 End Poverty Project 를 준비했다

프로젝트 기획

프로젝트 실행

프로젝트 평가

End Poverty Project Timeline

구글 닥스 회의록

YSD는 우리에게 End Poverty Project (EPP) 의 Timeline을 제시했으며 한달 간 총 세번에 걸친 전문적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수업을 받았다.

EPP를 진행하면서, 우리와 버디가 합쳐진 새로운 **KOVI** 팀을 만들게 되었다 (**Ko**rea + **Vi**etnam의 합성어/
뜻: 한국과 베트남에 장벽은 없다)

KOVI 팀 내에서는 언어와 일정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의견을 하나로 수렴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최고의 과정과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팀원 모두 피곤함을 꼭 참아가며 힘을 냈다

[Agenda]

1. Ice breaking: 심리테스트
2. repair ceiling 토의
3. 팀원에게 Project proposal 공유하기
4. Project proposal 의견 수렴
5. 기피토의
 - 유권의 부여를 (이유없함)으로 할 것인지, (아름답지만 active한 활동)으로 할 것인지
 - 다시 토의
 - 비대화의 팀원들 생각해보자

1. 10월의 출무: 조양숙

[추가적인 일]

- +9월 24일 점심시간 타워실에서 인혁, 민석, 윤솔 Project proposal 1차 수정
- +End poverty 이음 정하기
- +금요일에 할 인혁부 미리 VIET에게 말해서 Meeting 시간 잡기
- +인혁부 질문 만들어 보기
- +Time table 만들기
- +Luca가 말하든 'Private' 관련 논의
- +Proposal 영어로 번역하기

[자유 의견]

[illegible]

[project activity]

[illegible]

<EPC 기획안>

*사전적 정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

* 위의 정의의 역은 참이지만, 앞의 정의가 참이면 앞의 역은 참이 아니다. 즉 앞의 역은 앞의 정의를 의미한다.

지역사회의 의미 중
 「사회적 정의, 인간관계에 의해 또는 지리적 환경적 본래에 의해 나누어진 일정한 지역의 사회」
 「협의의 정의」
 다양한 관점을 갖고 있고, 다루고 있는 주제
 우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역(마을, 하우안과 같은 우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장소)
 우리 만나 진화해온 공동체
 소멸의 길
 변화 가능성(지역별, 규모, 사람)

*사전적 의미: 캠페인이란 일정한 장애 있어서의 행동, 특별한 목적을 가진 조직적 활동

“우리의 의미, 캠페인의 긍정적인 의미만 시연 교육에 집중하여, 캠페인 주자와 목적에 맞는 교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적이 없었던 새로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치적 탄압을 할 수 있는 선제자를 밝혀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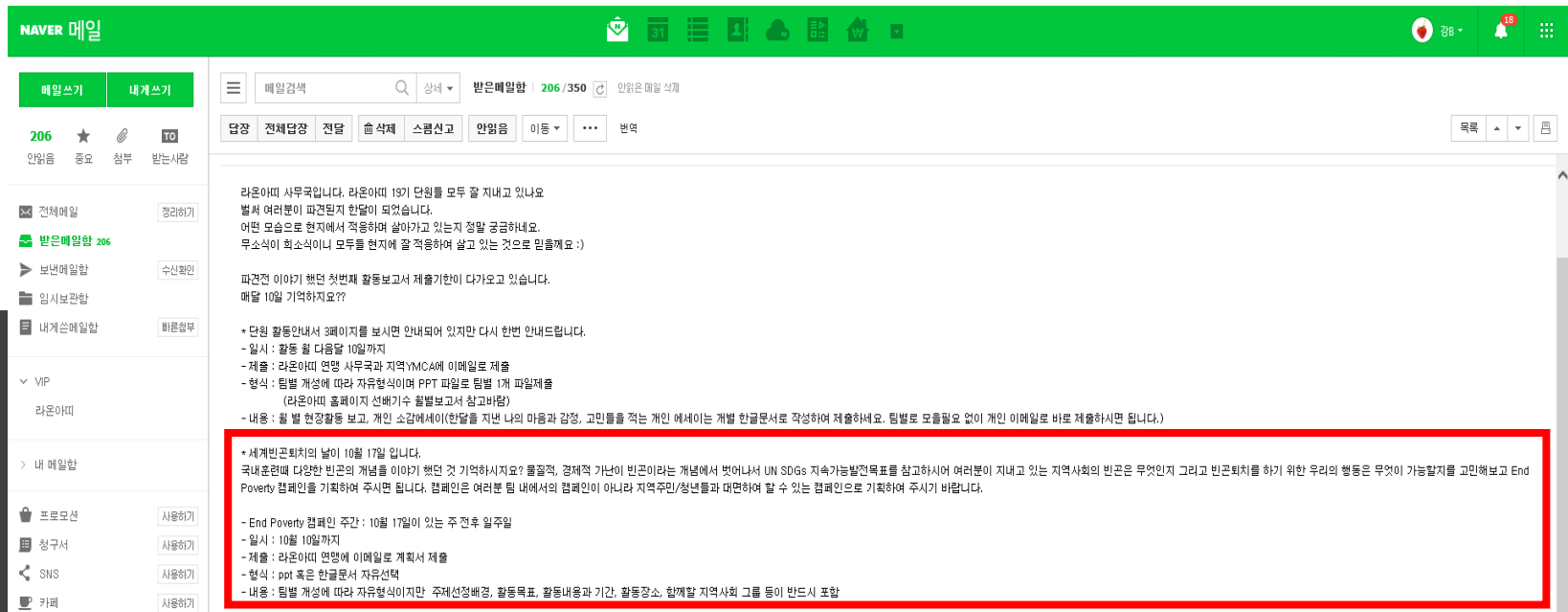
연식자전
시연 참여
상호작용
정보전달
공유
Signpost

- Prove the connection between our idea with Poverty, why teach children to protect themselves that end poverty (Vietnam)

· **그 외의 문제**
 예쁜 아이를 낳고자 하는 여성반응은 주로 스름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집착된
 욕구를 나타내고 있다.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발에 아이를 올
 리고서 애를 낳고 다니게 하는 것, 또는 사람에게 할 수 없게끔 대하는
 예쁜 아이의 문화, 타인에 전염감의 표시로 전염병을 하는 것이 있다.
 이를 인위 아류 반으로 분류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End Poverty

열심히 준비하던 End poverty project가
사실은 Campaign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VIETMEN!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뒤엎은 사건이 발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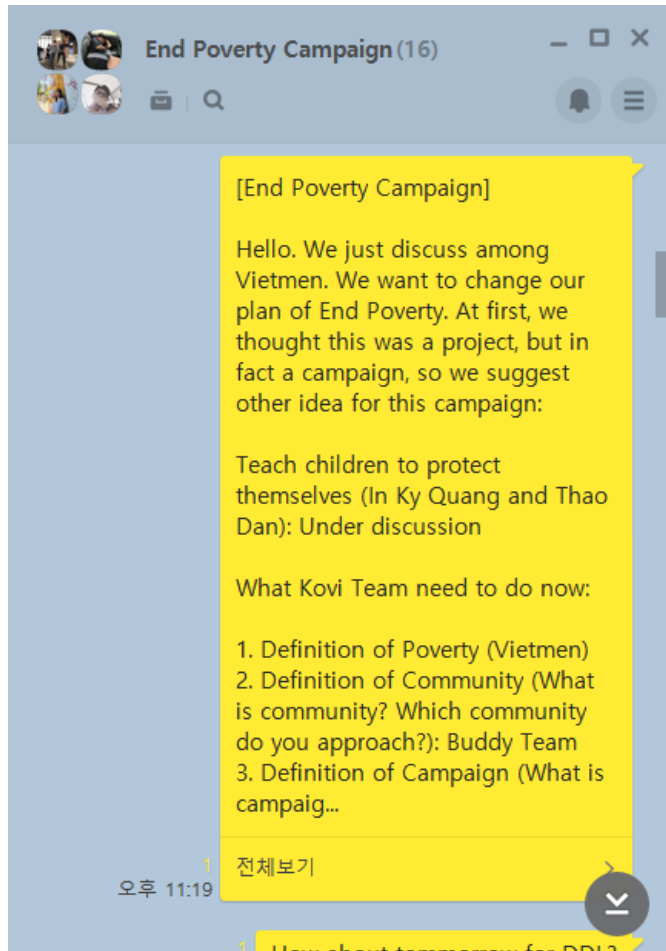
우리는 End poverty 관련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기획 중에 있었지만
9월 27일 Y 사무국에서 온 메일에는 프로젝트가 아닌 **캠페인**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어 큰 혼란에 빠졌었다

우리는 또 한번의 회의를 통해 우리가 준비하던 프로젝트와
캠페인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때문에 지금까지 기획한 프로젝트를 무산시켜야만 한다는 사실이 큰 실망감과 무력감을 안겨주었다.

End Poverty

심기일전한 VIETMEN, 다시 시작이다!



하지만 VIETMEN이
이런 일로 풀 죽어 있을 순 없지!

우리는 다시 힘을 내서 End Poverty
캠페인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먼저 YSD측과 버디들에게 프로젝트가
아닌 캠페인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고, 다시 캠페인 기획의 첫 단계로
돌아가 얹힌 실타래를 차례대로
풀어나갔다.

과연, 우리의 End Poverty Campaign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전송





호치민에 여행 온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거쳐간다는 벤탄마켓!

이미 현지가격이 익숙했던
우리에게 벤탄마켓의 음식은
너무나 비싸게 느껴졌다 ☺



말로만 듣던 '콩카페'

소문이 날 만한 이유가 있었군요..
여러 메뉴 중 많은 팀원들의
원픽으로 꼽혔던 코코아 스무디



아픈 역사가 담긴 전쟁박물관

식민지의 역사가 긴 베트남은
프랑스, 중국, 미국 등
여러 국가로부터 지배를 당했는데,
그 중 우리가 갔던 곳은
미국과의 전쟁을 다루고 있었다

휴식시간_ 시내투어

버디와 함께하는 시내투어!
벤탄마켓, 콩카페, 그리고 전쟁박물관

휴식시간_한인타운

스마트폰도 없이 전날밤 구글지도로 가는 길을
찾아본 후 무작정 떠났던 한인타운

현지 미용실 체험!

(ㅋㅋㅋㅋㅋㅋㅋㅋ)

엽기떡볶이

스마트폰이 없는 우리는 애초부터
엽기떡볶이집 주소를 메모장에 적어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 다녔다
역시 엽떡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Before



After



유가네 닭갈비

엽떡을 먹은 지 네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유가네 닭갈비로
발걸음을 향했다^^



RaonAtti

휴식시간_핑크성당

📍 Location : District 1

Thao Dan 학교 밖 청소년 센터에서 첫째 날 OT를 진행하고 돌아오는 길에 핑크성당을 들렀다

우연히 마주친 뺨에로 아저씨께서 나은이와 민석이에게 풍선을 불어주었다!

나은이의 꽃 풍선은 받자마자 다 터졌고,
민석이의 총 풍선은 아직도 꾸글꾸글한 상태로 집에 보관 중



휴식시간_Ky Quang 점심시간



Location : Ky Quang 옆 롯데마트

베트남에는 낮잠 문화가 있다.
그래서인지 Ky Quang의 점심시간도
2시간 30분이나 주어진다.

이때 우리는 낮잠을 자거나, 사탕수수 음료를
마시거나, 근처에 있는 롯데마트에 들르곤
하는데, 돌아오는 길엔 항상 비가 오며 가난한
우리는 우산이 하나밖에 없어 가위바위보 에서
진 사람은 비 맞으며 돌아오기 내기를 한다
(지금은 공금으로 새우산을 세 개를 구입했다)



휴식시간_보드게임

내기에 죽고 내기에 사는 베트남팀,
벌칙은 이마 두 쪽 내기나 타투하기^^



Exploding Kittens
익스플로딩 키튼스

젠가가 무너져 매우 애통한 예진이ㅠㅠ
곧 인혁이의 벌칙이 기다리고 있다



UNO 우노

버디들과 함께 한 보드게임
벌칙은 브랜드 모양으로 타투하기!

나이키, 아디다스, 텍사스치킨, 벤츠
ㅋㅋㅋㅋ 구찌를 못 박아서 아쉽다^^



YSD의 현지 코디네이터 Viet도 피해갈 수
없는 이마 두 쪽 내기...

사실 인혁이는 보라색을 좋아하는데, 들리는
소문으로는 딱밤을 보라색 멍이 들 때까지
때린다고 한다



Jenga 젠가



3 Thought

개인 에세이



예진's 에세이

베트남 공항에서 밖으로 발을 내딛었을 때, 공기는 습했지만 그리 덥지는 않았다. 아마 한국 여름의 더위가 극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지난 한달은 참 많이 바빴다. 베트남의 문화, 환경, 교통, 음식 등에 적응을 해야 했던 것과 더불어 현지 봉사 일정을 바로 소화해야 했기 때문이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오후 5시까지 봉사하고, 숙소로 돌아오면 7시가 넘는 일정에 초반에는 몸이 많이 힘들었지만 한달이 지난 지금은 일정에 완전히 익숙해져서 팀원들과 같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지내며 가장 놀랐던 것은 바로 '교통'이다. 베트남의 모든 도로가 오토바이로 점령당했다.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오토바이는 처음 봤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두가 오토바이를 탈 줄 알며, 오토바이는 베트남 사람의 일상 속에 오래전부터 자리잡고 있었다. 또한 교통체증이 심각하다. Ky Quang과 Thao Dan 봉사지를 오갈 때면 언제나 교통체증을 맛보게 된다. 매일 왕복 3시간 이상 버스를 타며, 버스안에서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정의를 내리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교통체증 해결 방안'이다. 도로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해야 할 것 같은데 베트남의 문화적 특성상 오토바이 수를 줄일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때문에 도로를 두가지로 완전히 분리시키는 건 어렵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오토바이 도로와 차, 버스 도로를 분리시키는 것이다. 도로 인프라구축에 대해 매일 생각하며 집을 오간다... 그 외에도 상수도 시설, 바퀴벌레와 개미의 잦은 출몰, 길거리 쓰레기문제, 공기 오염, 일회용 사용 등 논의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찾아냈다.





나는 현재 휴학을 하고 아띠로 베트남에 활동하고 있는 것이 너무 즐겁다. 내가 살아보지 못한 문화권에서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 얘기하고, VIETME N팀원들과 함께 지지고 볶으며 같이 사는 것이 내게는 큰 행복이다. 매일 밤 내일은 무슨 티셔츠를 입을지 정하는 것도, 가위바위보로 아이스크림 내기를 하는 것도 내가 한국에서 숨가쁘게 대학을 다닐 때와는 전혀 다르다. 지금은 온전히 라온아띠의 의미, 팀원,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좋다. 실제로 한 발자국 떨어져서 내 삶을 되돌아보니 한국에 돌아가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가 선명 해졌다. 아띠로 지낸 지난 2달 동안 나는 많은 고민에 답을 내렸고, 삶에 구체성을 더해가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사실 지난 한달의 기간을 되돌아보았을 때 가장 말하고 싶었던 것은 ‘버디 친구들’이다. 7명의 버디가 있는데 그 친구들의 이름은 루카, 안, 뇨, 정, 미아, 산, 펄이다. 그리고 우리의 코디네이터인 VIET과 YSD 인턴 Jenny도 우리의 친구이다. 버디들은 우리를 배려해주고, 우리가 하는 봉사, 프로젝트 등 모든 것을 정성껏 도와주려 노력한다. 정말 똑똑하고, 멋진 친구들이다. 이 친구들과 함께하면 편안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으며, 진지할 때는 한없이 진지해지곤 한다. 한가지 확실히 정의 내린 것은, 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연을 한국에서만 찾기에겐 아쉽다는 것이다. 세상에는 정말 좋고, 나와 잘 통하는 사람이 많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다면 내 삶은 더 풍성해지고 훌륭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이러한 이유로 요즘은 언어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은 욕망을 듬뿍 채우고 있다. 귀국 후 언어공부를 열심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꼭 베트남을 다시 올 것이다. 귀국을 상상하니 벌써부터 버디들이 그리다. (아직 귀국까지는 한참 멀었지만 말이다)

나은's 에세이

첫 달을 보내고 난 후

한 달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를만큼 무척 바빴다. 베트남을 둘러볼 여유도 없이 도착하자마자 프로젝트 기획과 주어진 과제들을 해냈고 이 모든 것들을 소화해내는 것이 벅찼다. 한국보다 더 치열한 하루하루를 보냈고 휴식시간마저 제대로 누릴 수가 없었다. 내 마음도, 주위도 둘러볼 겨를이 없었다. 일하러 왔다는 느낌이 컸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지쳐갔다. 나는 시골마을에서 농사와 텃밭을 가꾸고 주민들과 소통하며 밤하늘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모습을 꿈 꿔왔다. 하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 달랐다. 시끄러운 오토바이 소리, 화려한 건물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이런 대도시 호치민에 오게된 이유는 무엇일까?





소통

지역훈련을 하면서 너무 바쁜 스케줄 때문에 팀원들과 소통할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아쉬웠다. 그래서 베트남에서의 긴 시간동안 더 돈독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더욱 바쁜 스케줄로 팀원들과 소통할 시간은 더욱 부족했고 7명의 버디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버디들과 친해지기 바빴다. 7명의 새로운 친구들이 생긴 것에 대해 반가움과 설렘이 있었지만 우리들만의 시간이 없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컸다. 베트남 호치민을 온전히 들여다 보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한 팀원들과 더 끈끈해지고 서로 의지할 수 있길 바란다!



베트남에서 벌써 한 달을 보냈다. 덥고 습하고 비가 오는 것은 이제 그러려니 한다. 여기 와서 하루하루가 되게 빨리 간 것 같다. 봉사로 하루가 짝 차서 봉사 갔다 오면 하루가 다 가 있다. 그래서 봉사라는 생각보다 매일 그러다 보니까 일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든다. 봉사를 일로 느껴질 만큼 하루를 생활하면서 베트남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도 아이들을 만나는 것은 정말 즐겁다. 아이들의 웃음을 본다면 나의 피로가 다 풀리는 것 같지만 어떨 때는 힘들게 안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하루의 끝을 저녁 먹고 나서 산책하는 거로 소소한 행복을 찾았다.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주변 거리도 둘러보는 것이 좋았다. 요리를 한번 해보니까 되게 재미있었다. 맛있어하는 팀원들을 보면서 다음에는 어떤 음식을 만들어볼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요리 담당을 맡으면서 다양한 요리를 하면서 다행히도 흥미를 느꼈다. 하루하루 요리하는 재미로 살아간다. 여기 교통은 정말 오토바이가 점령했다. 너무 많은 만큼 매연도 굉장했고 걸어 다니는 우리로서 목이 정말 따갑다. 신호등은 있으나 마나 했고 사람보다 오토바이가 먼저인 것 같아 놀라웠다.

언어



음,,,베트남에 왔으니까 현지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 베트남어를 많이 써야 돼서 조금씩 배우면서 서로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는 줄 알았는데 편견이었던 것 같다. 현지 코디나 같은 나이 때 친구들은 영어를 정말 잘했다. 베트남에 와서 현지 언어를 더 많이 쓰고 싶었고 배우고 싶었는데 YSD와는 영어로 모든 소통이 이루어져 어려움을 겪었다. 영어가 공통언어이기 때문에 베트남어를 잘 모르는 나로서 조금이나마 편하지만, 영어의 한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YSD와 소통하는 것에 불편함이 있다. 소통하는 데 있어서 내 주장을 말하고 싶고 잘 못 이해한 것을 다시 설명해주고 싶을 때도 있지만 영어로 설명을 못 할 것 같아서 말을 하지 않는다. 그래도 버디 친구들과 함께 영어수업과 베트남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 YSD에게 고맙다. 영어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준 만큼 열심히 해보고 싶다. 소통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가 더 노력해보고 싶다. 조금씩 조금씩 많이 말해보면서 소통에 있어서 자신감을 얻었으면 한다!

일정

실 틈 없는 매일이 반복되었다. 주 6일 정기 봉사에 일요일은 Reflection과 PMP수업, 또한 End Poverty를 캠페인이 아닌 프로젝트로 오해하여 스케일 큰 'Ky Quang의 아동권리 증진'가 주제인 프로젝트를 기획하였다.

항상 부지런하게 살기를 꿈꿨지만 혼자서는 자주 나태해지기에 그러지 못했던 나에게 라온아띠 4주간 국내훈련과 베트남에서의 9월은 '보람참' 그 자체를 가져다준다. 다만 아쉬운 점은, 바쁜 스케줄 탓에 팀원 간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Buddy, 그리고 영어소통

우리에게 베트남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7명의 버디가 있다. 버디를 통해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버디와 모든 회의, 프로젝트 기획을 함께 하는 건 가끔 벅차다. 영어로 진행되는 회의는 시간과 노력이 배로 들며, 버디보다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우리는 의견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었다.

영어소통 문제로 고민하던 날 썼던 일기 중 일부이다:

주님, 느려도 좋으니 관계발전과 배려, 공존을 위해 나와 '다른' 사람과 먼 길을 함께해야 하는지, 주어진 시간 내 목표 달성을 위해 나와 '같은' 사람과 지름길을 걸어야 하는지 아직 알지 못합니다.

라온아띠를 통해 이를 끊임없이 고민하게 하시고, 확실한 정답이 아닌 최선의 선택으로 저를 이끄소서.

베트남어

베트남어에 흥미를 붙였다.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한가지 언어를 더 배웠을 뿐인데 한 국가의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이 가능해지며 새로운 환경에 더욱 쉽게 적응하게 한다는 게 매력적이다.

내년 1월에 다섯명이 흠어져 홈스테이를 하는데, 그때 내 가족들과 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공부하고 싶다. 또한 라온아띠가 끝나고 한국에 들어가 3월 중으로 베트남어 Speaking 시험 'OPI'를 치고 싶다.

'현지에 녹아 든다'의 의미

9월 5일, 처음 달러를 동으로 환전해 온전한 내 돈이 생긴 첫날,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고 사고 싶은 것을 살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뻐다. 팀원 모두 원래 가져온 달러를 모두 환전하려 했지만 현지인처럼 생활하기엔 너무 많은 돈이라는 Viet의 충고에 인당 100달러씩만 우선 환전하였다.

많은 생각들이 오갔다. 휴지 대신 Bum gun, 진공청소기 대신 빗자루, 에어컨 대신 선풍기, 적은 돈까지 우리는 현지인이 아닌데 한번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건 아닌지. 불만을 잠시 가라앉히고 생각한다. 나는 이곳에 편히 쉬러, 놀러 온 것이 아니라는 점, '라온아띠스럽다'를 끊임없이 되새겨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 해보자!





처음 베트남에 왔을 때 이제 시작이구나하면서 두려움, 설렘 등 많은 감정들이 들었다. 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주어지는 활동들을 하면서 점점 “재미있다”로 바뀌게 된 것 같다. YSD에서 제공했던 수 많은 프로그램, 소개 시켜 주었던 7명의 현지친구들, 현지관광, 그리고 봉사하고 있는 키왕과 타우단의 활동을 통해 점점 흥미를 찾아갔던 것 같다. 하지만 아직도 적응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다. 바퀴벌레나 도마뱀 등 한번도 보지 못한 벌레들과 공생을 하고 무협지 같은 도로를 매번 지나가면서 위험을 느끼고 언어소통의 문제로 매번 답답한 순간에 직면하고 위생과 같은 문제는 아마 끝날 때까지 적응이 안 될거 같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팀은 매우 바쁘게 산 것 같다. 항상 새벽에 일어나 밤 늦게 들어오고 다른 일들을 하다보면 어느새 잘 시간이 반복되어 1달을 기계적으로 산 것 같다. 그래서 아직 호치민이 어떤 특색을 가진 도시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둘러볼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지 친구들 덕에 조금이나마 현지에 적응하고 있는 것 같고 항상 고마운 부분이다. 하지만 정작 왜 내가 이 활동을 하고 있고 뭘 위해 왔는가? 에 대한 의문은 아직도 풀리지 않은 채 생각중이다.

4 Supplement

요리
청소당번



Best 음식 #외식편

한달동안 지내면서 먹은
음식들 중에서 베스트 메뉴
TOP 3를 선정해보았다!



1위 Hủ tiếu ga` 후 띠우 게



삼계탕 맛을 느낄 수 있는 국수!
담백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팀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Best 음식 #외식편

2위 Banh mi 반미



이정재 님은 아저씨가 하시는
일명 '정재 오빠네 반미'!
매일 아침을 책임져주는 중독성 강한 맛집

3위 Hủ tiếu gõ 후 띠우 거



Thao Dan의 점심 단골집!
돼지고기, 어묵, 메추리알, 돼지껍데기 등
다양한 재료들이 조화롭게 어울리는 맛

푸짐한 양이 큰 장점^^

Best 음식 #집밥편



양념장 장인

메인셰프

-매일 저녁 식사를 책임지는 요리사

-요리실력이 점점 수준급으로 나아감
(기대가 커지는 중)

-큰 손과 작은 손이 만나 합의점을 이루는 중

1위 꼬비



다양한 채소들과 삼겹살을 볶아 만든 요리!
일명 꼬추장 비비고~

원셰프의 양념장이 신의 한수였다

Best 음식 #집밥편

2위 카레



카레 속 잘게 자른 재료가 특징

향이 강하지도 않고 호불호 없이
즐길 수 있는 맛이다

3위 삼겹살



삼겹살은 진리다

말이 더 필요한가?

청소 당번

화장실, 부엌, 거실, 마당, 계단, 방 등등
우리는 '각 장소에 어떤 청소가 필요한 가'를
함께 고민하였고 각 항목의 청소를 며칠에
한 번씩 해야 하는지 또한 정리하였다.

Daily					
요리					
설거지 (선반정리)+음쓰					
집안 쓸기					
집안 닦기					
쓰레기통 비우기					
Twice a week					
빨래					
계단유리닦기					

Once a week					
화장실 (정리정돈, 변 기, 바닥, 세면 대, 거울, 선반)					
부엌(냉장고)					
계단나무 +돌부분					
마당 쓸기					
현관문 유리 닦기					

Once a month					
침실 (창문 닦기, 선풍기)					
정수기 닦기					
계단 (손잡이, 돌)					
Twice a month					
침구류 시트					

[매일 해야 하는 행복한 일]

-수채구멍 머리카락/화장실 개인물품 정리/각자방 정리정돈/책상과 의자 정리

베트남 현지 학생들은 보통 청소기
대신 빗자루를 사용한다고 한다.
때문에 우리도 평일엔 빗자루, 대청소 날인
일요일에만 진공청소기를 허락 받았다.
지키고 있는지는 비밀...

To be Continued

OCTOBER



19기 베트남팀
강예진 김나은 원민석 조은솔 최인혁